

A3003 재팬인덱스(Index VA)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재팬인덱스(INDEX VA)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 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약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약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펀드 명칭	재팬인덱스(INDEX VA)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17514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09.10.12
운용기간	2020.01.01 ~ 2020.03.31	존속기간	취항으로 별도의 존속기간이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우리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 일본의 상장주식의 주식인덱스 구성 종목 또는 주식형수익증권, 상장 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하여 낮은 비용으로 장기투자과 자산배분을 통한 해당지역의 대표 주식인덱스를 추종 운용하며, 포트폴리오 구성 시에 종목선정 및 비중조정 등을 통한 알파획득을 추구합니다.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백만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재팬인덱스 (INDEX VA)	자산 총액 (A)	3,869	3,062	-20.86
	부채 총액 (B)	2	4	116.54
	순자산총액 (C=A-B)	3,867	3,058	-20.92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2,240	1,952	-12.86
	기준가격 (E=C/D×1000)	1,726.41	1,566.72	-9.25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동 기간 일본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연초 증시는 미국과 이란간 갈등이 노출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었고 이에 따라 리스크 회피심리가 커지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중동 정세가 완화되며 수출기침 중심으로 반등세가 나타났고,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가에서 해제하고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글로벌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2월 증시는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는 공포감에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2019년 10월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을 인상하였고 이에 따른 여파로 소비 부진이 심화되며 경기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소매판매 및 지출을 비롯한 소비지표는 시장 예상보다 더 추락했으며, 전년 4분기 GDP는 전기대비 1.6% 감소해 시장 예상치보다 부진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3월 들어 일본 증시는 미국 및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변동성 지표인 VNKY는 3월중 한때 60을 상회하기도 했으나 3월말 기준 46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일본은 3월 말 기준 코로나19 확진자수가 2천명을 하회하며 주요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가장 바이러스 확산을 잘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3월 24일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한다는 발표 이후 확진자 수가 전보다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자 도쿄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모인 자체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자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자산 매입규모를 확대하였고, 아베 총리는 명목 GDP의 약 10%에 해당하는 재정 부양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증시는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3월경 일본의 공적연금펀드는 기본 포트폴리오 자산 구성을 수정해 기존보다 해외채권의 비중이 10%p (약 190조 엔)상승하고 국내 채권의 비중은 10%p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고 엔화는 타 통화들 대비 하방 압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BOJ가 연간 ETF 매입 규모를 12조엔으로 두 배 가장 증액한 만큼 증시엔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반면 아직 현실화 되지 않았지만,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도쿄에 대한 봉쇄령이 실시된다면 2분기 일본 실질GDP 성장률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으며 이는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재팬인덱스(INDEX VA)	-9.25	-5.83	-4.28	-3.34
(비교지수 대비 성과)	(-0.84)	(-0.86)	(-0.80)	(-0.97)
비교지수(벤치마크)	-8.41	-4.97	-3.48	-2.37

※ 비교지수(벤치마크): 국고채2~3년 X 45% + NIKKEI225(T-1) X 45% + MMI_CALL X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재팬인덱스(INDEX VA)	-3.34	-1.00	4.62	5.47
(비교지수 대비 성과)	(-0.97)	(-0.39)	(-0.35)	(-2.17)
비교지수(벤치마크)	-2.37	-0.61	4.97	7.64

※ 비교지수(벤치마크): 국고채2~3년 X 45% + NIKKEI225(T-1) X 45% + MMI_CALL X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추적오차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년
재팬인덱스(INDEX VA)	0.45	0.34	0.27

※ 추적오차란 일정기간 동안 인덱스펀드가 추종하는 특정 비교지수의 변동률 얼마나 충실히 따라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비교지수 수익률 대비 해당 인덱스펀드의 일간 수익률 차이의 표준편차로 기제합니다. 추적오차의 수치가 적을수록 해당 기간 동안 인덱스펀드가 비교지수와 유사하게 움직였음을 의미합니다.

▶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전기	0	0	0	147	0	0	0	0	0	1	-5	143
당기	0	0	0	-343	0	0	0	0	0	1	-5	-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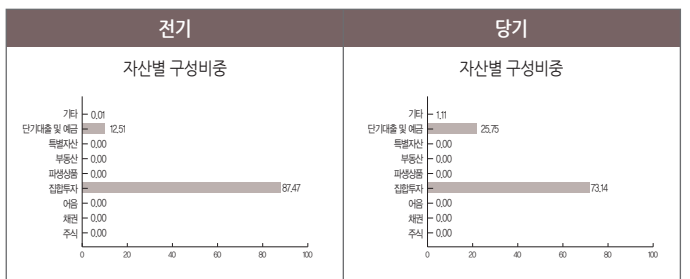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1.00)	0	0	0	2,239	0	0	0	0	0	788	34	3,062
	(0.00)	(0.00)	(0.00)	(73.14)	(0.00)	(0.00)	(0.00)	(0.00)	(0.00)	(25.75)	(1.11)	(100.00)
합계	0	0	0	2,239	0	0	0	0	0	788	34	3,062

※ () : 구성비중



▶ 환헤지에 관한 사항

환헤지란?	환헤지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줄이는 것을 말하며, 환헤지 비용은 기준일 현재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화자산의 평가액 대비, 환헤지 규모를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이 하락할 경우 (원화강세) : 펀드내 기초자산은 환율 하락분만큼 환 평가손실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 비용 분만큼의 환헤지 이익이 발생합니다. - 환율이 상승할 경우 (원화약세) : 펀드내 기초자산은 환율 상승분만큼 환 평가이익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 비용 분만큼의 환헤지 손실이 발생합니다. - 환헤지를 통하여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해당 펀드 수익률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단위 : %, 백만원)

투자설명서 상의 목표 환헤지 비율	기준일(20.03.31)현재 환헤지 비율	환헤지 비용 (20.01.01 ~ 20.03.31)	환헤지로 인한 손익 (20.01.01 ~ 20.03.31)
-	88.0	환헤지 비용은 환헤지 관련 파생상품의 계약환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이 불가능하며 환헤지로 발생한 손익 사항 역시 환율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의 상승/하락과 상응하는 환헤지 손익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환헤지 비용은 통화선물거래에 따른 수수료이며, 선도환거래의 경우 수수료가 계약 환율에 반영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은 불가능 합니다.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집합투자증권 미래재팬인덱스(주식·파생)	45.28	6		
2	집합투자증권 TIGER 국채3년	27.86	7		
3	단기상품 은대(우리은행)	25.75	8		
4			9		
5			10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집합투자증권

(단위 : 최수, 백만원, %)

종목명	종류	자산운용사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발행국가	통화	비중
미래재팬인덱스1(주식·파생)	주식형	미래에셋자산운용	1,268	1,386	대한민국	KRW	45.28
TIGER 국채3년	수익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848	853	대한민국	KRW	27.86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균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예금	우리은행	2009-10-12	788	0.46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균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서장	41	77	2,276,163	-	-	2119000125
김태현	과장	37	77	2,276,163	-	-	2119000109
최명혁	사원	28	77	2,276,163	-	-	2119000110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현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9.01.25 ~ 현재	최미영
2019.01.24 ~ 현재	김태현
2019.01.24 ~ 현재	최명혁
2018.05.29 ~ 2019.12.06	차인식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0	0.00	0	0.00	
판매회사	5	0.13	5	0.13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5	0.14	5	0.14	
기타비용	0	0.00	0	0.00	
매매·중개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0	0.00	0	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0	0.00	0	0.00
증권거래세	0	0.00	0	0.00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합니다.

※ 성과보수내역 :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 연환산, %)

	총보수·비용비율(A)	매매·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5595	0.0015	0.561
당기	0.5604	0.0034	0.5638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 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재팬인덱스(INDEX VA)'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당사에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헤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 및 제4호)